

#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현안

이대우 편



## | 발간사 |

세종연구소는 “국가전략”을 대표 브랜드로 내걸고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외적 전략환경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세종연구소는 우리 정부의 장기적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2005년 처음으로 『국가전략 2020』 5권을 발간하였고, 2015년 새로운 『국가전략 2030』을 계획하여 2016년 3권의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년 「국가전략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는 2017년 1월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한반도정책을 분석하여 역시 2017년 5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현안』이라는 책을 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서문에서 이대우 박사가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 출신이며 독특한 성향을 가진 정치경험이 거의 전무한 트럼프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반도 및 국제안보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 조율, 한미 FTA 재협상,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이 한미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현안들의 쟁점 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1장에서 이상현 박사는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현안이 무엇인가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박사는 한미 현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지향적 국가관계와 대중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고 있음과 한미FTA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계량화(수치화)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 통일연구원의 박종철 박사는 미북관계와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옵션을 ‘대북제재, 외교 및 군사적 압박, 레짐 체인지, 그리고 대화’ 등 4가지로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미북관계 시나리오를 핵동결이라는 부분 타협, 북한 비핵화, 북핵보유 인정, 군사적 충돌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4가지 시나리오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 순서를 ‘북핵보유 인정,’ ‘북한 비핵화,’ ‘군사적 충돌,’ ‘북핵 동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그는 한국에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 비핵화이며, 북한 핵동결을 차선책이고, 군사적 충돌과 북한 핵보유인정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 아주대학교 이왕희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 한미 경제통상관계는 물론 미국의 경제외교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모든 미국의 경제정책이 ‘고용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검토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미 간에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미국에게 약간의 양보가 필요하며, 한미FTA 재협상이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미국회의회 로비 강화와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세종연구소 이대우 박사는 4개월 간격으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는 사드포대 한반도 전개와 비용문제, 방위비분담금 증액,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문제, 한미동맹의 국제적 공조 강화 등 5가지의 안보현안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한미 간의 이러한 안보현안은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집필에 임해주신 통일연구원 박종철 박사, 아주대학교 이왕휘 교수, 이상현 박사, 이대우 박사, 그리고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코멘트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어려운 시기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1월

세종연구소 소장 진 창 수

# 차 례

## 발간사

서 문 (이대우) .....	1
제1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 (이상현) .....	13
I. 서론 / 15	
II. 2016년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 18	
III. 트럼프 행정부 대외전략 기조와 정책방향 / 27	
IV. 트럼프 행정부 대외전략과 한미관계 / 43	
V. 맺는 말 / 57	
제2장 미·북관계 전망과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 (박종철) 67	
I. 문제제기 / 69	
II. 미·북관계 전망 / 70	
III.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 / 88	
IV. 맺음 말 / 100	

## 차 례

제3장 한미 경제통상 협력: 정책 대안 (이왕희) .....	107
I. 머리말 / 109	
II.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정책 / 111	
III.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이 한미 경제관계에 주는 영향 / 127	
IV. 정책 대안 / 131	
제4장 한미 신정부 하에서의 한미 안보현안 (이대우) .....	145
I. 서론 / 147	
II.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과 6·30 한미정상회담 / 150	
III. 한미 안보현안 / 157	
IV. 결론 : 정책적 함의 / 179	

# | 서 문 |

이 대 우  
(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는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탄핵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차기 정부의 외교전략, 특히 대한반도 정책을 예측해 보고 2017년 역시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 차기 정부의 대미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책의 내용은 한미 안보현안에 포커스를 맞출 것을 결정하고 2017년 6월 말 출판을 목표로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와 이대우 박사, 통일연구원의 박종철 박사,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이왕휘 교수들 각 장의 집필자로 선정하여 집필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북한의 핵실험 및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이에 대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강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 시사 등 한미 현안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함에 따라 출판 시기를 늦추었다. 세종연구소는 집필자들의 원고마감을 8월 말로 연기하고,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예상을 뒤엎고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경제인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물리치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게다가 그는 선거 기간 내내 과거 미국이 추진했던 외교안보전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아태 재균형정책(Rebalancing)’ 또는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 자체보다는 정책실행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판하면서(talking loudly but carrying a small stick), 군사력 증강을 통해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곳에 대해서만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어 미중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그는 동맹의 무임승차 불용을 강조하면서 동맹의 중요성마저 폄하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신고립주의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미국인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는 주범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표출했다. 나아가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불공정 수입의 중단 차원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45% 징벌적 상계 관세 부과, 불공정 무역관행 철폐를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검토, 그리고 다자협정 대신 양자 무역협정 추진 등을 강조했다.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와 관련된 정책 공약으로 우리 정부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 부담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북한과는 핵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북한을 ‘상종하기 힘든 상대’로 간주하면서 중국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 유도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외교안보전략은 역사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정착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가뜩이나 21세기 국제정세는 유동성과 불확

실성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독특한 성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구축될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반발과 심지어 공화당 내부의 반발 그리고 그가 선정한 주요 보직자, 특히 매티스 국방장관과 티러슨 국무장관과의 정책충돌 양상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겨우 각 부처의 장관 정도를 임명하고 구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각 지역 담당 차관보의 임명은 서문을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트럼프 정부는 향후 3년여 동안 미국이 추진하는 대외정책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외국 산업을 위한 미국 산업의 희생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다른 나라의 군대를 지원하여 미국의 군방이 약화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으로 보호무역과 방위비분담 증액을 재차 강조하였다.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에너지 계획(An America First Energy Plan), 미국 우선의 외교정책(America First Foreign Policy), 일자리와 성장 복구(Bringing Back Jobs And Growth), 미국 군사력 재건(Making Our Military Strong Again), 법집행 기구의 정상화(Standing Up For Our Law Enforcement Community),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상 가동(Trade Deals Working For All Americans) 등 트럼프 행정부의 6대 정책기조(정책과제)가 발표되었다. 역시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대선공약 이행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외교안보 정책기조가 확정된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며, 이러한 외교는 '미국의 힘'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임도 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으로써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들을 매우 신속하게 정책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강조했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바탕으로 네오콘이 중심에 서 있던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편집자는 이 책을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제1장은 이 책의 서장격으로 이상현 박사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전략’을 분석했고, 제2장은 한미 현안 중 가장 시급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대북정책 조율’ 문제를 박종철 박사가 분석했으며, 제3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한미FTA재협상’ 문제를 이왕휘 교수가 집필했고, 이대우 박사는 제4장에서 순수한 ‘한미 안보현안’에 대해 분석했다.

제1장에서 이상현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와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한국의 차기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있어 현안이 무엇인가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상현 박사는 ‘국제정세가 대중영합주의에 기반한 신고립주의, 자국이익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수십년 동안 국제사회의 번영을 이끌었던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현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군사개입 축소, 동맹국 및 우방국의 방위비분담 확대, 세계경찰 대신 미국의 국익에 집중할 것’이라는 언급에 기초해 트럼프 정부는 고립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고, 대외경제정책도 ‘미국의 경제이익 극대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상현 박사는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의 월스트리트 기고문을 인용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미국을 든든한

우방으로 갖게 될 것이고, 반대로 미국의 이익을 거스르는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상현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에 있어 운신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 간 '말폭탄'을 주고받는 상황이기에 한미 간의 대북정책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북정책 4대 기조에는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현 박사는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은 대북정책 조율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 외의 한미 현안으로는 방위비분담 증액,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현 박사는 결론에서, 이러한 현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지향적 국가관계와 대중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하고 있음과 한미FTA가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계량화(수치화)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 “미북관계 전망과 한미 대북정책 공조 방향”에서 박종철 박사는 미북관계와 대북정책 공조를 시나리오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우선 미북관계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예측불가능하면서도 역동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옵션을 '대북제재, 외교 및 군사적 압박, 레짐 체인지, 그리고 대화' 등 4가지를 제시하면서, 각 옵션에 대한 내용 설명과 제약요인, 각 옵션에

대한 북한의 대응 등을 분석하여 역시 4가지 미북관계 시나리오(핵동결이라는 부분 타협, 북한 비핵화, 북핵보유 인정, 군사적 충돌)를 작성했다. 그는 4가지 시나리오 중 실현가능성이 낮은 순서를 ‘북핵보유 인정,’ ‘북한 비핵화,’ ‘군사적 충돌,’ ‘북핵 동결,’로 결론 내렸다. 한편 우리에게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북한 비핵화이며, 북한 핵동결을 차선책이고, 군사적 충돌과 북한 핵보유인정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주장한다.

한편 박종철 박사는 한국을 배제한 채(Korea Passing), 미중 간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상황, 미북대화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군사조치를 취한 것을 우려하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는 물론 한미 간의 대북정책 목표, 정책수단, 역할분담, 중국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한 정책조율일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 제재압박과 대화 병행에 대한 로드맵 마련해야 하고, 북핵문제와 미북 및 남북관계에서의 우선 순위 결정, 북한 변화유도 방안, 그리고 한반도 평화 및 통일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진지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박종철 박사는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앞서 한국은 새로운 대전략을 마련하고,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코리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억제력 확보와 북핵무용론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인 “한미 경제통상협력: 정책 대안”에서 이왕휘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이 한미 경제통상관계는 물론 미국의 경제외교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정책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모든 미국의 경제정책이 ‘고용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검토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경제정

책 수립에 전념하면서 국제경제기구는 물론 우방국들과의 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에 무역·제조업정책국(Office of Trade and Manufacturing Policy)을 신설한 것에서 찾고 있으며, 이 정책국을 통해 백악관과 상무부와 무역보호주의에 입각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왕희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공정무역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왕희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한미 경제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한미FTA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대한민국 통상압력은 가중될 것이고, 그 압력은 서비스업이나 지적재산권보다는 제조업, 즉 철강, 섬유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왕희 교수는 한미 간의 통상갈등이 외교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미국에게 약간이 양보가 필요하며, 한미FTA재협상이 우리에게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미FTA가 미국 수출업체의 한국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미FTA재협상의 실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담당하지만 그 기조는 미국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미국의회 로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제4장, “한미 신정부 하에서의 한미 안보현안”에서 이대우 박사는 4개월 간격으로 출범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의 안

보현안을 분석했다. 물론 대북정책조율과 한미FTA재협상도 넓은 의미에서 한미 안보현안이지만, 그 중요도를 감안해 별개의 장을 통해 분석함에 따라, 제4장에서는 좁은 의미의 안보현안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다.

이대우 박사는 트럼프 정부의 안보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 그리고 6·30 한미정상회의 분석을 통해 5가지의 한미 안보현안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북한의 도발, 한국 및 미국의 대응 등에 따라 한미 안보현안의 중요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대우 박사가 집필을 시작할 때 한미 안보현안 중 사드포대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이가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현안 과제였으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사드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후 이 현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의 현안 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한미는 사드포대 한반도 전개와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사드포대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된 한미간 이견은 해소되었고, 사드비용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드배치 비용문제는 미국이 지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둘째 현안은 방위분담금 증액이다. 이대우 박사는 우리 정부는 이미 충분한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018년 미국과의 방위비협상에 당당히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최악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의 경제력을 감안해 일정부분 증액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셋째, 북한위협과 중국의 전략적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일안보협력이 우선적으로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넷째,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한미 현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이대우 박사는 전작권 조기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면서 서두를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시점에서 한반도 유사시 명령지휘체계의 이원화는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주장이다. 끝으로 한미동맹의 국제적 공조 강화, 즉 글로벌 차원에서의 한미 안보협력이 한미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주장이기는 해도, 이 박사는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 한국도 국제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은 지금보다는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 간의 안보현안은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대우 박사는 분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원고가 마감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과 무력시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 확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지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도 대북정책 공조강화와 한미동맹 강화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한미 간의 현안 협상은 갈등보다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11월

편 집 자